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에 대한 토론문

이 형 원
한신대학교 박물관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와 농경생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토론자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듣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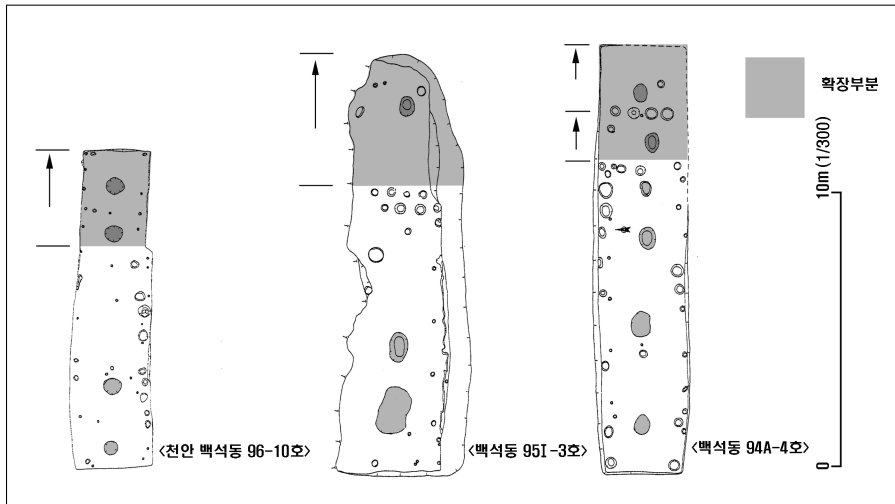
1. 청동기시대 전기 세장방형주거의 거주원 구성과 공간분할

발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세)장방형 주거지에 복수의 爐址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共時的¹⁾으로 배치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를 확대가족적 성격의 世帶共同體가 남긴 주거 형태의 잔존물로 이해하고 있다²⁾. 즉 일정한 거리를 둔 노지를 경계로 하여 세대별로 分室된 세대공동체의 가옥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발표자도 지적한 바와 같은 가옥의 증축 양상이며 이 때 노의 증가를 수반한다(도면 1).

향후 가옥구조뿐만 아니라 취사용기 등 유물의 구성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 그런데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대형 주거지 가운데 노지가 한 개만 확인된 예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회적 위계나 경제력이 높은 단일 세대의 가옥이나 공공 시설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공동체 가옥으로 보아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유적별 주거 또는 주거군, 나아가 취락 내에서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민족지 사례에서는 여러 세대가 한 가옥에 함께 거주할 경우 세대별로 노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노만 있는 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표문에 제시된 아산 용화동유적 2지점 1호주거지(발표문 도면1-3)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1) 동일 주거의 복수 노 가운데 동시 공존이 아니라 시간차를 갖는 예가 많이 있다.

2) 이에 반해 기능적·젠더적 공간구분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도면 1. 청동기시대 전기 세장방형주거지의 증축 양상

2. 세대공동체주거인 세장방형주거의 근접 현상에 대한 해석

토론지는 복수의 주거가 모여 있는 장방형 住居群에 대해서 2동 조합의 일렬배치를 비롯한 병렬·직교배치나 3동 조합의 일렬배치나 삼각배치 등과 같은 정연한 근접 배치 관계를 보이는 2~3동의 주거군을 세대공동체로 파악하고 있다³⁾. 발표문에 제시된 아산 장재리 안강골유적과 연기 보통리유적에서 이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발표문 도면3-2·4). 그런데 발표지는 3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전기 전엽이나 중엽의 취락은 세대공동체 주거 간의 거리가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데에 비해(발표문 도면 2), 전기 후엽이 되면 세장방형주거지가 근접하여 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발표문 도면 3). 그렇다면 이 주거지의 동시공존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한다.

3. 전기 취락의 사회규모와 사회조직

발표지는 전기 가락동유형 취락의 규모와 구조를 3기 내외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하위취락(25인 내외, 공주 제천리 등)→ 소규모 하위취락 4개가 결합된 중위취락(100인 내외, 연

3) 2동 조합의 경우 출입구쪽을 서로 마주하고 있거나 3동 조합인 삼각배치의 경우 광장쪽으로 출입구를 향하고 있는 경향이 높다.

기 보통리 등) → 5개의 중위취락이 결합된 상위취락(500인 내외, 연기 송원리 등)으로 구분하고, 상위취락 내부는 개별 취락 단위가 수평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⁴⁾. 이에 반해 전기후엽의 역삼동·혼암리유형 취락은 수평적 결합은 사라지고, 구릉 정상부의 공지를 둘러싼 환상배치로 바뀌며, 공지와 초대형주거 그리고 중핵 주거군 등의 존재를 통해 종적인 체계로 전환된다고 한다.

토론자는 송국리유형 단계의 중기가 되면 주거·분묘·생산·저장·의례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령 관창리유적에서 볼 수 있듯이 중심취락 내부의 상위취락과 일반취락 사이에 직접관계(종속관계)가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다⁵⁾. 여기에서는 일반취락(D·E·F지구)을 컨트롤하는 상위취락(B지구)의 존재와 이들 사이에 재분배경제 시스템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기의 전시기인 전기후반 단계부터 취락내 또는 취락간 위계관계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발표자가 생각하고 있는 종적인 체계는 사회구조 또는 사회조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보완 설명을 요청한다.

4. 전기 취락의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대규모 유적은 대규모 취락인가?

발표자는 연기 송원리유적이나 송담리유적, 그리고 천안 백석동유적과 같이 100기 이상의 주거지가 발굴된 대규모 유적을 대규모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논지를 전개시켰다. 백석동유적의 경우는 화전농경에서 수도농경으로의 전환과 관련되며, 전기 취락 사회는 거점취락을 중심으로 소규모 취락과의 결합과 자체적 성장을 통해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취락 규모의 대형화와 이에 따른 사회조직의 불안정성 증가, 다시 말해서 농경 집약화 과정으로 인한 인구집중이 있었고, 해체과정에서 인구분산이 일어났던 시기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한 가설이고 어느 정도 수긍할만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의 정치하지 않은 편년 연구 수준⁶⁾에서의 논의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며, 취락과 집단의 정주도 및 이동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주거지 이외의 무덤, 저장시설, 의례공간, 생산지 등 광의의

4) 토론자는 연기 송원리취락이 가옥 60여동의 거주 인원에 해당하는, 즉 500인 이상이 동시에 공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서 일단 발표자의 견해를 존중하는 선에서 토론에 임한다.

5) 그렇지만 중심취락 외부의 중위취락이나 일반취락과의 상호 관계는 직접(종속)관계가 아닌 간접(호혜)관계로 추정한다.

6) 전기의 절대연대를 기원전 1300년 또는 1200년에서 900년 또는 800년까지로 볼 경우, 전기전엽-중엽-후엽의 시간폭은 최소한 100년 이상이다. 최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동남해안권의 청동기시대 편년을 40년 단위로 설정한 안재호(2011)의 검토나 호서지역의 전기 청동기 편년을 30~50년 단위로 나눈 김현경(2012)의 시도가 있었다.

취락 고고학 차원의 종합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또한 대규모 유적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토지 점유에 의한 누적의 결과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취락고고학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세밀한 편년을 통한 단위 취락의 공시성 확보이다. 다만 편년연구와 취락연구는 지속적으로 병행해가면서 진전시켜야 한다.